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26호](2016. 11/12)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 홍보
팀

신노엔, 국내 불교종단과 교류 확대

신노엔이 금년 들어와 국내 불교 각 종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불교미래포럼 창립에 참여하였고, 12월에는 범어사(조계종), 삼광사(천태종), 진각종과의 교류도 깊이 하였다. 아울러 불교TV와도 협력관계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나가츠카 교무장,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에서 축사

나가츠카 교무장이 지난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한국불자교수연합회 주도로 창립한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에서 축사를 건넸다. 불교미래포럼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불교 지식인들이 펼치는 담론의 장으로서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수불스님이 통섭(統攝)을,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심익섭 회장이 초대회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이날 나가츠카 교무장의 축사는 타카하시 포교사가 대독했다(축사내용은 뒤에 게재).



<나가츠카 교무장의 축사를 대독하는 타카하시 포교사>



<불교미래포럼 창립대회>

아라이 국제본부장,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과 환담

지난 12월 내한한 아라이 국제본부장이 19일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을 예방하고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교류를 가졌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과 환담하는 아라이본부장>



<범어사 주지스님과 아라이본부장>

아라이 국제본부장, 삼광사 주지스님과 환담

지난 12월 내한한 아라이 국제본부장이 19일 삼광사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교류를 가졌다.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존상을 제공받는 아라이본부장>

아라이 국제본부장, 진각종 통리원장 접견

아라이 국제본부장은 지난 12월 20일 서울에 위치한 진각종 본부의 통리원장과 환담하고 불교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진각종은 밀교(密敎)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재가불교로서 신노엔과 유사성이 많다.

아라이 국제본부장, 불교TV 사장 면담

아라이 국제본부장은 지난 12월 20일 불교TV 사장을 면담하여 불교 확산을 위한 협력관계를 넓혀 가기로 했다.

아라이 국제본부장, 연제구 이웃돕기 성금기탁

지난 12월 내한한 아라이 국제본부장이 19일 부산정사가 소재한 연제구청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신노엔의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행사로써 지역사회 불우이웃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연제구청장에게 성금을 기탁하는 아라이 본부장>

부산정사에서도 '행복 500명' 등탑 제막식 거행

‘부산정사’에서는 지난 12월 19일 “행복으로 이어지는 500명 신노등불의 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 탑은 내부에 500개의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제작되어 부산정사로 이송되어 온 것을 이번에 제막한 것이다. 이 탑은 2015년 야마나시 신초지 제등호마에 단참으로 참좌한 교도들이 종정스님과 약속한 정진교도 유치 및 구제의 영선을 건네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라이 본부장이 참좌한 가운데 거행된 500명 등탑 제막식>

2017년도 한수행 개백과 결원 각각 5일간 수행

2017년도 한수행 일정이 공표되었다. 개백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5일간, 중원은 1월 25일부터 30일까지의 6일간, 결원은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의 5일간이다. 개백과 결원은 매일 3회씩 실시되지만, 메인(main)은 개백이 오전 6시 30분, 결원은 오후 7시이다. 이번 한수행에서는 개백과 결원을 각각 5일간 수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처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2016년도 이사회 개최

신노엔 한국이사회가 2016년 12월 24일 타치카와 응현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이 승인되었고, 전공첩 신청금액이 조정되었다.

<이달의 유모어>

1. 만병통치약이 치유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병은 무엇일까?

☞ 병 의음마

나가츠카 미츠오(長塚充男) 교무장의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 축하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통섭이신 수불 큰스님과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여러분들에 의해 “불교미래포럼”이 창립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심익섭 회장님, 연합회의 여러분께 항상 많은 우의와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신노엔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현대 사회의 혼미한 상황이 가치관의 다양화와 함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금전적 가치에 눈을 돌려 때로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현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불교도로서 규명하여 널리 사회를 계몽하고자 하시는 귀 연합회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7월 5일에 열렸던 귀 연합회의 포럼에서, 신노엔의 국제화에 대하여 발표의 기회를 주신 점, 나아가 신노엔의 부산정사에 많은 분께서 참관해 주시고 연합회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불교는 세계의 3대 종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팽창하는 세계 인구 속에서 불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볼 때,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종교이탈 상황은 위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상(meditation)이나 마인드 풀니스(mind fullness) 등, 불교 사상이나 수행에 기반을 둔 새로운 움직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의 시점에서 고찰한다면,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커다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활동으로서 불국토의 건설을 목표로 ‘불교미래포럼’이 창립되었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전 세계에 있어서도 크나큰 의미가 있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하여 그 성과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더불어 연합회 관계자 모든 분들이 다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축하에 대신하겠습니다.

불기 2560(2016)년 11월 21일